



주낙영 경주시장의 2023년... <1> 문화관광체육 분야

APEC 경주 유치 사활건 한판승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세계가 기억할 경주

<관련기사 2·3면>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이 정치 인생에 사활 건 한판승부는 2025 APEC 경주 유치다.

그는 지금 "2025 APEC 경주 유치 가장 한국적인 도시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라는 구호를 걸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대구광역시보는 민선8기 △문화관광체육 △경제산업 △농축수산 및 복지 분야 등 3회 걸쳐

신는다.

APEC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민간조직인 범시민추진위원회가 146만3874명의 유치 염원이 담긴 '100만 서명운동' 최종 서명부를 경주시에 전달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85일간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펼쳤다.

100만 서명운동은 범시민추진위원회 분과별 소속 단체가 중심이 돼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냈다.

주시장의 2003년은 무척이나 분주했다.

주시장은 '2023 경북도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가 수여하는 이번 시상상은 행정, 의정,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룬 인물을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주시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 △차세대 첨단과학 혁신도시 조성 △APEC 정상회의의 유치 도전 △도심 관광·상권 활성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용찬 기자

경북소방본부, 경북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청도소방서 장지연 소방장 최우수상 수상 영예 안아



경북소방본부가 "제9회 경북도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가졌다.

행사는 지난 1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소방안전강사의 역량 강화와 소방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화재인전을 주제로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의기법을 피했다.

먼저 21개 소방서에서 제출한 강의 교안 관련

해 교수 학습전략 등 13개 항목에 대한 1차 서면 심사를 했다.

선발된 10개 소방서가 대회 현장에서 강의력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했다.

청도소방서 장지연 소방안전강사가 시각장애인 맞춤형 화재대피요령 S·O·S 기억하자.(Sense Out Siren!=는끼면? 나가서 외쳐라!)란 주제로 발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지연 소방안전강사는 2024년 5월 소방청이 주관하는 "제10회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 경북 대표로 참가한다.

성주소방서 이은호 소방안전강사가 '대피할 땐'아이폰(eye-phone)' 주제로, 영주소방서 진주미 소방안전강사가 '화재대피 Go! Go! Go!(알리Go-대피하Go-신고하Go)'란 주제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성용 기자



아이들에게 산타가 찾아왔어요~!! 상주시 신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용동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30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산타할배가 찾아간Day' 특화사업을 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산타복을 입고 저소득층 아동 30명을 위해 '함께가요 행복고' 모금액으로 구입한 120만 원 상당의 겨울 외투와 학용품(크레마스, 색연필, 스케치북), 장난감을 전달했다.(사진=상주시제공)

소상공인,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어렵다"

소상공인 증가와 영세·과밀화 경쟁력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어려워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50.1%(다소 부정적+매우 부정적)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지원 등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이 72.9%로 가장 많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12.7%), 과밀경쟁 구조개선, 폐업 및 재기 지원(10.4%) 순이었다.

내년 구성될 차기 국회사정에서 논의할 정책이슈로는 대출 연체율 증가 및 부실 대출 심화(33.6%),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 문제(32.1%), 전가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부담(19.4%)을 꼽았다. 올해 가장 큰 경영부담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 33.8%,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수급 21.8%, 고금리와 대출 상환 부담 및 만기 도래 18.3%로 조사됐다.

다만 '향후 1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소상공인은 82.9%를 차지했는데 이는 취업 곤란이나 노후 대비 등을 이유로 한 생계형 창업이 89%에 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 소상공인 창업의 91.1%가 생계형이지만 이 중 78.4%는 사업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7.6개월, 창업 소요비용은 평균 4억5000만원이었다.

창업 전 지위는 임금근로자 46.2%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업종 유지(35.7%), 소상공인-업종 변경(9.2%) 순이다.

올해 1~10월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4610만원, 영업이익은 507만원,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89만원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종사 소상공인의 월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660만원으로 평균을 크게 상회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타격이 큰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경 기자

대구·경북 아침 영하권 맹추위

'봉화군 석포' -16.5도 경북북동산지 한파경보

한파특보가 발효된 대구와 경북내륙에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18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영주, 경북북동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의성, 청송, 영양평지, 봉화평지, 대구에는 한파주의보가 유지 중이다.

주요 지점 아침 최저기온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봉화석포 -16.5도, 봉화읍 -14.1도, 영주부석 -14도, 안동예안 -13.6도, 문경동로 -13.1도, 영양 -12.5도, 칠곡팔곡산 -11.8도, 김천대덕 -10.7도, 울진소곡 -10.6도, 경주토함산 -10.4도 등을 기록했다.

올겨울 가장 낮은 일최저기온 기록 현황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청송 -12.8도, 영주 -12.2도, 의성 -12.1도, 문경 -11.3도, 안동 -10.4도, 봉화 -10.0도, 영덕 -7.9도, 구미 -7.8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천년왕국의 화려한 부활... 5천만 관광객 시대 연다

주낙영, “청룡의 해 갑진년 2025 APEC정상회의 꼭 유치 역사 문화관광 특례시 지정 조속히 완료 미래 경주발전 초석 다지겠다” 희망찬 살게

경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유명하다.

경주는 그만큼 발길이 닿는 어느 곳 이든 문화 유적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밤이면 더 빛나는 동궁과 월지를 비롯해 허허벌판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첨성대.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불국사 석굴암까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다.

경주는 대한민국의 주요 관광지, 도시 곳곳이 유적지나 고대 유물들로 채워진 거리 박물관이다.

가는 곳마다 그 옛날 문화의 정수를 담은 사찰, 석불 등 많은 사적지와 유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찬란했던 그 때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왕조의 영화를 더듬을 수 있다.

■ 5000만 관광객 시대 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5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다.

신라천년 제국의 땅에 세계속 경주라는 관광 깃발을 꽂는다는 각오다.

주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단 없는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올 한해 쉽지 않았지만 달랐다.

경주가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위해서다.

제2의 관광 전성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단 없는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올 한해 쉽지 않았지만 달랐다. 결과 올해 경주로 ON 출시, 스마트 에어돌 개관, 도심 관광·상권 활성화 등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시장은 “내년 청룡의 해 갑진년에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 역사문화관광 특례시 지정도 조속히 완료 해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라 천년의 고도를 자랑하는 경주시는 최근 국제회의나 엑스포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까지 성공적으로 끌어올렸다.

주요 명승 고적으로는 양북면 범곡리에 있는 석굴암 석굴을 비롯, 불국사와 나원리 오층석탑,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포석정지, 부산성지, 흥덕왕릉, 원원사지, 관문성지 만리성, 옥산서원, 영지 등이 있다.

문화재 보유율이 전국의 5.5%, 경북도의 30%로 총 합계 396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 경주시 제2회 관광정책대상

주낙영 경주시장이 올해 처음 시행된 관광정책대상 수상으로 경주문화 컨벤션도시로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7월 ‘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이 우수 관광정책사례에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이연택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장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민간부분의 국제회의시설을 연계한 전시복합산업(MICE) 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전시복합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스마

트관광도시 조성의 기반을 닦은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대 178만㎡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 이번 수상으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문별 우수 관광정책 사례를 발굴해 이룬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주낙영 시장은 “관광정책대상 수상을 계기로 문화관광도시 경주가 국제회의도시로 그 위상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향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컨벤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3 한국관광의 별’ 본상 8개 부문에서 경주 대릉원·동궁과 월지가 선정됐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부터 시작해 매년 각 분야에서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단체, 개인을 발굴·시상하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경주시 대표 관광명소인 대릉원·동궁과 월지는 주야간 다채로운 행사로 하루 평균 관광객 4만 명을 유지했다.

2023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오디오 가이드, AR도슨트 투어,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통적 관광명소와 스마트관광 기능을 접목해 한국관광의 별 최고 영예인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됐다.

경주 대릉원은 신라시대 왕과 왕비 귀족 등의 무덤 23기가 모여있는 ‘천마의 영혼을 담은 언덕’이라 불린다.

올해부터 무료 개방하고 미디어아트 행사를 열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시대 궁궐 유적지와 안압지로 알려진 인공호수다.

수시로 바뀌는 조망시설을 설치하는 등 꾸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계절 내내 저녁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이자 ‘도심 속의 신라’를 느낄 수 있어 최고의 관광명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2023 한국관광의 별 수상을 계기로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관광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

■ 경주 황리단길 등 인산인해

경주시가 4.0 규모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광지가 북적였다.

지난달 30일 오전 4시 55분께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으로 관광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황리단길을 비롯한 지역 관광명소에는 지진 발생 다음 날부터 일상을 되찾았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과 21년 만에 무료개방한 대릉원에 올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1473만 2033명(외국인 190만 명 정도)이 방문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3만 1397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는 등 평상시 1일 평균인 5만 명 대비 63%에 육박, 지진으로 인한 경주 관광 불안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리단길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일 현재까지 1349만 2430명이 방문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30일에는 1만 4223명, 지난 1일에는 1만 2563명 등 2만 6786명이 다녀갔다.

대릉원도 올 1월부터 지난 1일 현재까지 123만 9603명이 다녀갔다.

지진 발생 날인 30일에는 2526명, 지난 1일에 2085명 등 4611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경주시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관광객 추이를 파악해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광객 무인계측기(황리단길 31대, 대릉원 15대)에 실시간으로 체크된 데이터로 중복입장을 가려낸 수치다.

■ 경주 찾은 관광객 4043만명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올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4043만 명이다.

지난해 3793만명 보다 6.6% 증가한 수치다.

경주 관광 인기가 올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관광 일반지 명성을 되찾기에 충분했다.

경주 관광 인기가 올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관광 일반지 명성을 되찾기에 충분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올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지난해 3793만명 보다 6.6% 증가한 4043만명으로 제2의 관광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최고 행사는 단연 대릉원 입장료 전면 폐지와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해 열린 ‘대릉원 미디어아트’다.

대릉원(11월말 기준 145만명)과 황리단길(11월말 기준 1247만명) 등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중심상가로 유인하기 위해 펼쳐진 불금예찬과 중심상권 동행 행사를 비롯한 경주문화관광198 활성화는 경주 관광 외연을 사내 전역으로 확장시켰다.

시는 내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를 통해 관광객 5000만 시대를 활짝 연다.

국제 관광도시로 우뚝 서는 동시에 세계적인 MICE 산업도시로 위상을 높인다.

■ 신라역사 새로운 관광명소 제공

신라 금관이 출토된 ‘금관총’과 신라고분의 대한 이해도를 높일 ‘신라고분정보센터’를 비롯한 신라왕궁 출토유물 전시관인 ‘신라월성연구소(송문대)’가 올 6-7월 개관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과 함께 디지털 복원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신라인의 생활상이나 신라왕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7년까지 1365억원 예산을 들여 타임 머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신라 왕경(王京) 핵심 유적의 디지털 복원도 병행한다.

복원 결과물을 일반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실 공간속 디지털 체험관도 조성한다.

경주민속공예촌과 맞닿은 곳에는 신라 공예인들의 숨결을 느끼고 신진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위한 공간인 ‘신라금속 공예관’은 내년 6월 개관된다.

감포에는 문무대왕 해양정신과 신라 해양 역사를 교육·전시하는 공간인 ‘문무대왕 해양역사관(2025년)’, 문무대왕면에는 해양문화체험 복합센터인 ‘선부역사기념공원(2027년)’이 각각 개관돼 해양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 | | | | | | | |
|------|--------------|-------|--------------|-----|--------------|-----|--------------|
| 대표 | 053-267-9000 | 경영지원국 | 053-267-5000 | 광고국 | 053-267-0800 | 문체부 | 053-253-0065 |
| 부사장 | 053-254-0500 | 기획조정실 | 053-267-0600 | 사회부 | 053-253-0060 | 지방부 | 053-253-0064 |
| 편집국장 | 053-257-0200 | 인원실 | 053-267-0700 | 정경부 | 053-253-0061 | 편집부 | 053-253-0063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낙영, 역사문화관광 특례시 지정 추진 총동원



교통·숙박·맛집 예약
검색까지 모바일 관광앱
경주로 ON' 중심으로 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조속히 마무리 대한민국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올인

올 9월부터 시작한 100만인 경주유치 서명운동이 불과 85일 만에 146만 명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사도민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망을 보여줬다.

서명지는 이달 중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준비기획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 전달된다.

지금까지 APEC 경주 당위성과 유치 분위기 조성 등에 전념했다면, 앞으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APEC 유치 추진단'이 컨트롤타워가 된다.

이들은 공모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내외 홍보, 범시민 유치활동 지원 등을 펼쳐 나간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타 도시와 차별화된 유치제안, 현장실사,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외교부 공모절차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정부와 정계는 물론 공중파, SNS 등을 활용해 막바지 유치에 전력 집중한다.

■역사문화관광 특례시 지정 추진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 특례시 지정 추진과 경주로ON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대한민국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올 9월부터 교통·숙박 예약에서 맛집 검색까지 모바일 관광앱인 '경주로ON' 하나로 경주 여행이 가능해졌다.

항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대릉원, 신경주역을 활용한 오프라인 여행자라운지에는 '경주로ON'과 연동되는 디지털사이니지, 짐보관 서비스, 포토부스, 북카페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경주보문단지 내 동궁원, 버드파크와 함께 또 다른 힐링 명소로 거듭날 경주 식물원(라원)도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궁원의 부족한 콘텐츠인 가상현실(VR), 증가현실(AR) 등의 체험시설 도입과 야외 정원을 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도서관과 지식정보센터, 커뮤니티 공간을 접목한 복합문화도서관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도서관, 생활문화시설, 경주의 자연을 융합한 이른바 '카페형 도서관'으로 미래 지향적 공간을 만든다는 게 경주시의 기본 구상이다.

■보문관광단지 확변한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 경주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관광이 가능하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보문로와 경감로 등 보문관광단지 총 9.7km(시범운행구간 9.4km·차고지 출입구간 0.3km)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및 여객·화물운송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첫 지정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총 34곳을 지정한 바 있다.

시는 보문관광단지 내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025년부터는 사업비 7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자율주행 운행 지원 조례 제정 및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절차도 밟는다.

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보문관광단지가 첨단교통과 우수한 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개최 도시 지정 시 한국의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인들을 앞에서 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자율주행차량 실증 환경이 우수한 지자체로 확인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관광 도시를 넘어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왕동사지 발굴·정비 사업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사업 중 하나인 인왕동사지 복원·정비에 가속도가 붙었다.

시는 12억원을 들여 지난 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인왕동사지 유적 일원 경역(경계가 되는 구역)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공정률은 70%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업은 금당지, 십자형건물지, 동화랑지, 의랑지 등에 건물지(건물이 있는 터)를 복토하고 초석을 설치한다.

경주지역에서 보기 드문 와적기단에 유구보 호각을 설치해 교육적 공간을 마련함을 물론 방문객 편의를 위한 탐방로와 안내판, 주차장 등을 만든다.

정비 사업은 유적의 보전 원칙을 최우선으로 여겨 관람환경을 개선해 유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 관람객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적으로 정비한다.

인왕동사지 유적 일대는 7세기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절터이다.

인왕사지에 대한 문헌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인왕사는 김인문의 원찰로 창건됐다가 다시 중건됐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인왕사지가 문헌의 인왕사로 비정(比定)된 것은 1930년대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서이며, 이후 연구자들은 그의 견해에 따라 이곳을 인왕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신라시대 전형적 건축형식인 쌍탑가람을 보이면서 금당지, 탑지, 회랑지, 담장지, 와적기단 등 독특한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2016년 1월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사지'로 지정돼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다.

시는 향후 미발굴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와 고증 연구를 통해 유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동·서탑 복원 등의 정비를 한다. 이번 인왕동사지 정비를 통해 인왕동사지, 동궁과 월지, 경주 분황사지와 더불어 신라 왕경을 알릴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시는 신라사찰 건축의 연구자료로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을 잘 복원·정비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도시 관광·상권 활성화 확장

경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대릉원 고분을 배경으로 펼쳐진 미디어아트가 야간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떠올랐다.

대릉원 무료 개방과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펼쳐진 '2023 경주 대릉원 미디어아트'는 5월4~6월4일 까지 대릉원을 찾은 관광객 수는 31만4163명이다.

지난해 1년간 전체 대릉원 방문객 132만 9114명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옛 경주지역은 '경주문화관1918'로 개관 후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해 활기를 띠었다.

올해는 △1918 콘서트(5회, 1만2300여명) △아트&마켓1918(6회, 2000여명) △유명 미술가 전시전(5회, 2만8946명) △무류대관(269회, 2만9628명) △문화장착쇼 프로그램(60회, 93명) 등의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중심상권 금리단길에서 5월26~11월3일 까지 열린 불금예찬 야시장은 21회에 걸쳐 4만3000여 명이 방문해 새로운 관광코스로 각광받았다. 봉황대 뮤지컬쇼, 거리예술워크 등과 연계해 매출액 1억 원을 훌쩍 넘겼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순조

문무대왕의 해양정신을 알리고 신라 해양 교류 역사를 교육·전시하는 공간인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는 김포읍 대본초등학교 폐교 부지(대본리 617번지 일대) 9089㎡에 151억 원 예산을 들여 2024년까지 연면적 1793㎡ 규모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건립한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기존의 단순 전시·체험 위주의 청소년해양센터, 해양박물관과는 차별화된 시설로 조성되고 있다.

역사관 내에 청소년해양학교를 운영하면서 올름도·독도 영토체험과 문무대왕릉, 이견대, 감은사지 일대 답사는 물론이고 문무대왕의 업적과 유적 홍보·참가 프로그램 등 교육적인 요소도 가미했다.

1층에는 문무대왕 청소년 아카데미와 해양 마린스쿨, 체험장, 카페 등의 체험시설이 들어서고, 2층에는 문무대왕 자료관과 문무대왕 해양 교류관 등의 전시시설을 설치한다.

문무대왕 자료관은 문무대왕과 삼국통일, 문무대왕 역사유적, 해양정신 계승을 중심으로 꾸민다. 문무대왕 해양교류관은 신라해양인물과 신라해양 교류문화 등의 콘텐츠로 구성된 신라와 문무대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시는 해양역사관이 완공되면 문무대왕 수증왕릉을 비롯한 인근 지역 문화유적이 체계적으로 홍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내륙관광에서 양남 주상절리,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송대말 등대로 이어지는 해양관광 코스가 개발돼 동경주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문무대왕의 해양개혁 정신을 계승해 신라의 찬란한 해양 역사를 널리 알리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적극 활용해 동남권 대표 해양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세계질 전전후 축구 훈련장 시설인 '스마트에어'이 올 4월 16일 정식 개장 후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여름철 24℃, 겨울철 18℃로 1년 365일 쾌적한 운동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각종 축구대회, 프로팀 훈련, 동호회 시합, 행사장소 대관 등으로 올 한해(12월 8일 기준) 총 이용객수는 1만7000여 명에 이른다.

스포츠 복지를 통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파크골프장은 물론 체육센터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순항 중이다.

시는 내년 연말까지 39억 원 예산을 들여 △시내권(경주파크골프 제2구장) 18홀 △북부(안강) 9홀 △남부(외동) 9홀 등 총 36홀을 추가 조성한다.

기존 조성 완료된 시내내권 36홀 △서경주(건천) 9홀 △동경주(양남) 18홀을 더하면 5개 권역에 파크골프장이 총 99홀이 운영되는 셈이다.

올 7월에는 건천에 다목적 체육공원이 준공됐다.

향후 충효 국민체육센터(2026년), 현곡 체육공원(2025년), 남경주 국민체육센터(2026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2027년), 베이스볼파크 3구장(2025년) 완공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 울진
영덕 울릉

포항지진 피해보상 소송 1개월 새 22만명 참여



울릉도 바다에 홍해삼 방류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는 경북도 울릉군과 함께 지난 6일 울릉군 4개 어촌계 해역에서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홍해삼 27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사업은 울릉군 연안에 홍해삼 등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울릉군이 함께 추진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홍해삼 종자와 같은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을 방류하는 '2023년도 수산자원관리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두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조성에 앞장서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든든한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덕관광살롱' 내일 개최

영덕관광의 핵심축이 될 거버넌스 구축 목표(제)영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20일 영해만 세시장 내 '3.18문화살롱'에서 제1회 관광포럼 '영덕관광살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덕관광살롱은 목전의 과제인 영덕 관광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관광업계, 관광 학계 인사들이 모여 각자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자 기획했다.

관광포럼 당일 재단은 영덕의 관광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관광 활성화 방향을 타진하게 된다. 또,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 영덕 관광에 관심이 큰 지역 주민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1심, 200만~300만원 배상 판결
손배액 최대 1조5000억원 달할 듯
정부-포스코 항소 반발 움직임도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차례 일어난 포항지진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가 1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법원이 포항 시민 1인당 200만원(두차례 지진 중 한차례만 겪은 시민)에서 300만원(두차례 모두 겪은 시민)씩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18일 포항지진법시민대책본부(법대본 공동의장 모성은)은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이 현재 22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대본은 "1심 소송인당 규모는 5만명이었지만 지난달 16일 1심 판결 뒤 1개월 사이에 약 17만명이 증가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포항시민(50만여명) 대부분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16일 "지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사람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11일(규모 4.6 여진) 당시 포항지역



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차례 지진 모두를 겪은 시민에게 300만원씩, 한차례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씩 주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포스코홀딩스가 항소하자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사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법대본도 맞항소하는 한편 추가 소송인을 모집 중이다.

이번 소송 소멸시효는 내년 3월19일까지로 그 이전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 참여 희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50만여명의 포항 시민 대다수가 두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만큼, 50만명이 소송에 나서고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부와 포스코가 공동으로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은 최대 1조5000

억원(1인당 300만원씩)가량이다.

현재 하루 평균 1만명가량이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는 등 소송대란이 예상되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50만 시민들의 모두 소송에 참여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일괄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정영명 기자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 성황리 마무리

개항 100주년 풍성한 행사로
사흘간 3만5000명 찾아 성황

울진 2023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린 축제는 예년보다 많은 3만5000여명이 참가했다.

경북도 지정유망축제로 선정된 이번 축제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이슈와 유류비 상승 및 동해안 어족자원의 고갈로 지쳐있을 지역주민들과, '대한민국의 숲, 울진'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순병복 울진군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축제를 즐기면서 바다가 제공하는 우리 수산물을 더 잘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다.

한때 비바람이 부는 곳엔 날씨와 한파특보에도 불구하고 죽변항의 특별한 매력을 체험하기 위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시식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죽변항의 매력을 만끽하는 추억의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한파와 우천에 대비한 500석 규모의 TFS 텐트, 에어돔 씬터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는 점에 방문객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개막식 퍼포먼스인 어선퍼레이드와 야간에 축제장에 전시된 어등은 죽변항을 배경으로 감성적 야경을 자아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맨손활어잡기체험은 잡은 활어를 바로 회로 썰어서 가져갈 수 있어서 참여자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 물회퍼포먼스, 수산물 무료 시식, 인기가 수 공연과 보물찾기,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실시로 즐길거리 풍성한 축제가 됐다.

축제 마지막날 펼쳐진 '읍·면 대항 단체 줄다리기'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지역 축제가 가지는 화합과 단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정수 기자

영덕군 지사보험 유공자 시상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지난 15일 영덕로하스수산물식품지원센터 강당에서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9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분과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지역사회복지 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해중 민간위원장)가 영덕군수 표창을, 김경동(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영덕군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강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노인분과가 민관협력 으뜸상, 병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장애인분과가 비금상, 축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합상을 받았다.

최말선(달산면), 신무기(지품면), 김영순(영해면), 장승희(창수면), 정다경(여성·보육분과), 박재영(아동·청소년분과), 민은경(통합사례관리분과), 이형숙(고용·자활분과) 위원에게 개인 유공자 포상이 주어졌다. 이밖에,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연계를 위해 노력해 온 김호준(이마트 영덕공원점) 대표가 영덕군기초푸드뱅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광열(영덕군수) 공공위원장장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건설하는 그날을 위해 앞으로도 한결같은 신념과 헌신으로 영덕군민의 동반자이자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울릉군, 먼 섬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신안군과 함께 법사위 찾아가
"연내 제정 요청" 건의서 전달

울릉군과 신안군은 지난 15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도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국회의를 방문했다. 국도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날 남한권 울릉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는 서삼석 의원실에서 특별법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연내 제정을 위하여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남한권 울릉군수는 공동 방문 하루 전 김병욱 의원과 함께 정적식 간사를 찾아 특별법의 법사위 전체회의의 상정과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으

며, 이후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먼저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울릉군과 신안군에서 발의해 병합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도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군수는 "울릉군민의 염원이자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 민선8기 1호 국악인 특별법 제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통과를 위해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할테니 군민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정윤환 기자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상주 일반산업단지, 경산4 일반산업단지, 고아제2 농공단지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영천시, 시민이 뽑은 2023년 시정 베스트 3 선정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최대규모 2059억 유치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

영천은 올 한해 시민들에게 가장 공감받은 시책 '베스트 3'을 선정했다.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 시민투표(1인 3건까지 선택 가능)를 실시해 결정했다.

집계 결과 총 투표수는 9020표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영천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 2059억 투자유치(14.3%)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13.8%) △영천 별아마

늘' 첫 수출로 미국 시장 판로 개척(11.8%) 순으로 선정됐다.

1위로 선정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최대 규모 투자유치'는 경북경제자유구역 국내 복귀 1호 기업인 (주)화신이 800억 원 규모 투자로 지역 미래 차 부품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다.

국내 물류 대기업인 로젠(주)가 1259억 원의 규모로 영남권 통합물류 터미널을 신설하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호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영천시는 110만평 산업단지 조성하고 금호대장 하이패스IC 조기 개통에 박차를 가하고, 기재부 예타 통과 마지막 관문에 와 있는 대구도 시설도 1호선 금호연장에 총력을 기울여 전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2위는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이 차지했다. 8월 개통 이후, 4개월 만에 27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영천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득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쉼과이어, 산림복합체험관 등 인근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소득이 돌아오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위는 '영천 별아마늘 해외 첫 수출'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영천마늘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 인프라를 확대해 온 노력이 해외 판로 확보라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산물 유통기업 ESU와 당초보다 확대된 연간 1천 톤 450만 불 협약을 체결하면

서 영천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그외 △연초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선제적 지원 △어르신 영천-대구-경산 광역 대중교통 전면 무료 실시 △학생 교육 구입비·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합계출산율 2년 연속 전국 시구 단위 1위 달성, 분만산부인과 개원 3년 만에 300번째 아기 탄생 순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표 결과로 바탕으로 2024년 새해에는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을 더욱 늘리고, 기업유치, 관광, 농업 등 각 분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19일 오전 11시 영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4회 영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영천-인천공항 직행버스 운행

영천시가 오는 20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간 직행버스를 1일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재개한 공항버스가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으나 운행 횟수 부족으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버스를 늘려 공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 이용객들은 언하공단 사거리 동영천IC 방면에 설치된 공항버스 승강장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다. 공항 2터미널까지 4시간 15분 정도 소요된다. 최은하 기자



성주 건축행정평가 최우수상

성주군이 2023년도 경북도 건축행정평가에서 건축디자인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행정 건설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 사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실적 △건축물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등 18개 지표다.

경북도,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축행정평가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등 건축행정의 건설화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도재훈 기자



고령군 특산물 딸기 올해 첫 홍콩 수출 본격화

홍콩 1호 무농약 딸기

고령군 특산물 고령 딸기가 지난 17일 홍콩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출길에 올랐다.

이날 선적식은 대가야읍 소재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에서 경북통상과 함께 진행했다.

홍콩으로 수출된 딸기는 명품 딸기로 명성을 얻은 '설향' 품종으로 최초 무농약 딸기라 더욱 뜻깊다. 40박스를 시작으로 올해 수출 물량은 총 10톤 정도로 예상된다.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이현광 대표는 "올해 수출을 발판 삼아 점차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

고, 고품질 딸기 수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애써준 농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출농업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청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15일 2024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결정을 위한 배치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는 해설 시연 테스트를 통해 기본 해설 능력과 1년간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2024년도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해설사의 역량 향상 및 해설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청도읍성, 운문사, 청도역, 신지생태공원 총 4개소의 안내소에서 문화관광해설사 11명이 순환 근무하고 있다.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진행하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청도군 관광지를 알리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각 안내소마다 정기해설 프로그램(연1회, 오후 2회)을 시행할 계획이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현장 참여할 수 있고, 관람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즐거운 청도여행을 선사하고자 한다. 조여은 기자

영천경마공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청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7일 한국마사회 본사를 방문해 정기한 한국마사회장과 면담을 갖고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과 영천경마공원 건설 현장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최기문 영천시장은 "2단계 사업 착수에 발목을 잡고 있던 레저세 현안이 지난 11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에 따라 현안 해결에 활로가 열렸다"며 "한국마사회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사업이 정부 방침에 따라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영천경마공원 건설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관내 업체와 인력·장비·자재, 식단·숙박업소 등 지역 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은하 기자

경산시, 지방시대 2050 경산 혁신성장 전략 심포지엄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방안 혁신성장 도모 지속노력 모색

경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2050 경산 혁신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지역구 윤두현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부서 및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산시의 신성장 동력 발굴, SW 인재 양성과 벤처창업 대학도시 육성,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한 기조 강연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지방이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는 ▲미래 경산의 신산업 육성 전략(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윤철석 원장) ▲SW인재양성과 벤처창업 대학도시 육성(경산(대구대학교 최병재 부총장) ▲경산시 혁신성장 기반 조

성 방안(국토연구원 장철순 명예연구위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경수 영남대학교 산학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경산 혁신성장 전략에 대한 종합토론은 ▲이문희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정우창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하정석 지방시대위원회 전문관 ▲홍윤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산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장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경산시의 새로운 성장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경산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운 기자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청도군의의회

청도군의의회
054-370-0900
경상북도 청도군 회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의의회 054-370-6404

김장호 구미시장 정치 풍년가... 공모 5082억 확보

확실히 재도약 실현하는 일감 추진 내년 시너지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추가확보 행정력 동원 총매진

구미시가 올해(11월말 기준) 각종 공모를 통해 총 82건, 5082억 원의 사업을 확보했다. 지난해 실적(65건, 4,498억 원) 대비 17건, 583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민선 8기 시작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연초부터 구미 재도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다.

김시장은 직접 앞장서서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경북도청 등 관련 기관을 50회 이상 방문하는 열정을 보였다.

매주, 공모사업 사전 협의로 부서 간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로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시장은 "구미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균형 잡힌 성장의 기반이 될 여러 분야의 공모사업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확실히 재도약을 실현하는 일감을 구체적으로 추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시기다. 내년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 분야별 주요 선정 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3013억 원(59%)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중 국·도비 59%, 기타 재원 12%, 시비 29%로 집계됐다.

외부 재원이 71%로 시의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사업 전체 82건을 분야별로는 △산업·경제 20건 △도시·환경 12건 △농촌 7건 △문화·관광 19건 △교육·복지 24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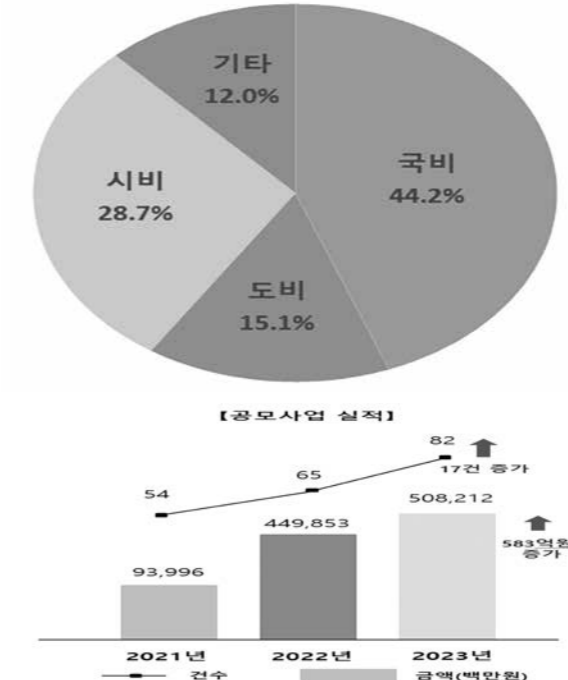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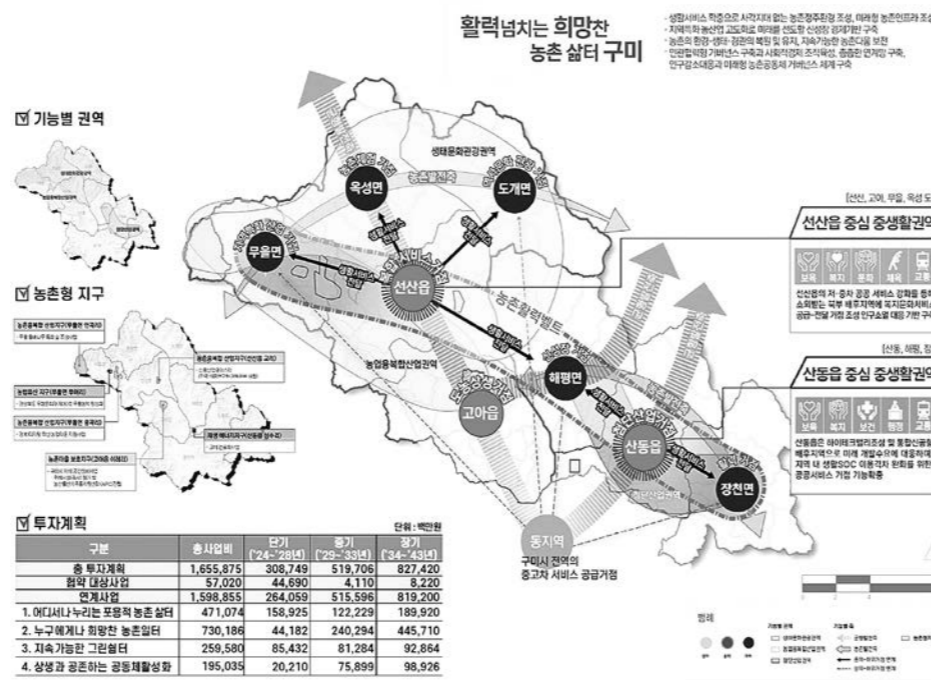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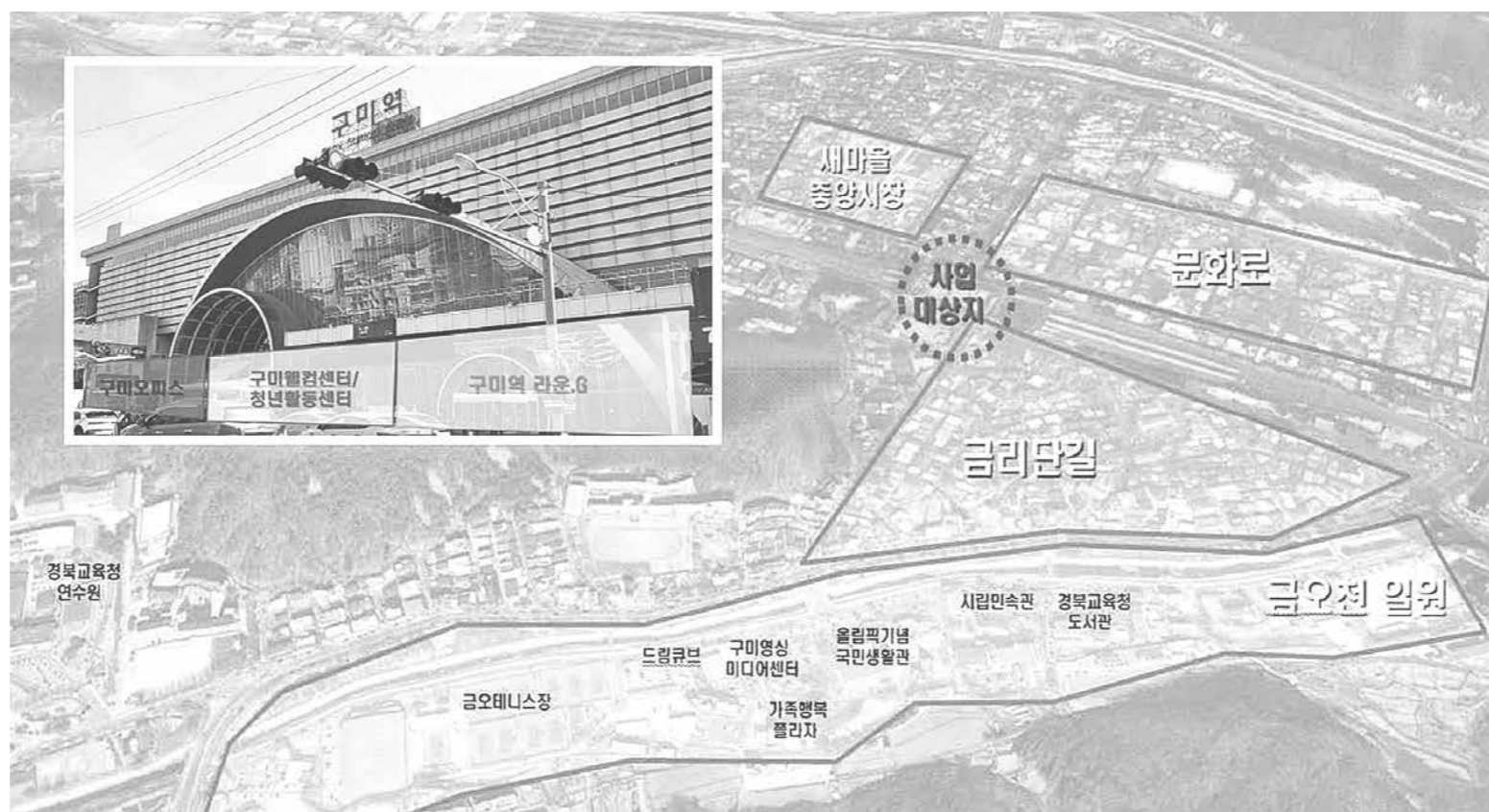
전 분야의 사업이 고루 선정, 지역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분야는 지난해 대비 782억 원이 증가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한 몫했다.

산업·경제 분야는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499억) △방산 항공우주용 탄소소재 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325억)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사업(280억)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146억)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DX 기반 구축사업(148억)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 지원 센터지정(47억) 등이다.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



성, 기존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도시·환경 분야는 △녹색융합클러스터(반도체 폐기물 → 이차전지 원료로 변환, 490억)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플랫폼 사업(80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65억) △국가산업 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60억) △2024년 주차환경개선사업(봉곡동 주차타워 조성, 60억) △한전 전선지중화사업(금리단길 주변, 25억) △2023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19억)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금리단길, 6억)이다. 구미시는 주차환경을 개선, 전선 지중화로 미

관을 개선해 세련된 도시 이미지와 친환경적 이미지로 도시상표를 한층더 높인다. 농촌 지역 개발 및 농업의 미래 산업 육성에 눈여겨 볼만하다. 농촌 분야는 △농촌융합사업(신산·고아·무을·옥성, 도계 증생활권 개발, 450억) △산장지구 다목적 농촌융수개발사업(374억) △농산물 도매시장 증축 및 리모델링(35억) △2024 축산 약취개선사업(13억5000만원) △2023 농업대전 환 들녘특구 조성사업(19억7000만원)이다. 도농 간 격차를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한다.

■ 활력이 넘치는 도시

문화, 예술, 스포츠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에 모두 19건이 선정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2023 경북도 미색축제 공모(구미라면 축제, 4억) △2023 우리동네 명품거리 조성사업(10억) △2023 경북 무장에 관광환경 조성사업(8억)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신산항교, 인동항교 활용, 4억5000만원) 등이다.

일상에서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로의 변모를 꾀했다.

이뿐이다.

△2024 시민운동장 일원 개보수(70억) △박정희 체육관 개보수(52억)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내진보강공사 및 개보수(30억) 등이다.

시는 2025년 아시아 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연령별 맞춤형 교육과 복지 정책에도 힘썼다.

교육·복지 분야는 △학교복합시설 사업(구미초·도솔중, 522억) △(가칭)경북교육청교육진흥원 설립(387억)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16억) △폐교 활용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3억) 등이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가치를 올린 셈이다.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8억8000만원) △생활인구늘리기 시책사업(GOALL來, 20억)이다.

시는 구미역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청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건기의 새로운 시작 노르딕워킹으로 하나 되는 치매안심마을(4000만원) △All-In-One 윈스토퍼어 치매안심마을(80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보건지소 8곳, 19억) △2023 생활 사회서비스 사업(일상돌봄 서비스 4억7000만원) 등으로 의료제공 환경 개선과 생활 돌봄을 확대해 복지 환경을 한층 강화한다.

■ 외부재원 확보 공모 총력 대응

지난달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되면서 2024년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구체적 중점 과제를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구미와 관계 있는 사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등 3대 특구를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등 더욱 체계·선제적인 대응을 한다.

12월 말 선정 예정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문화특구, 2억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모은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발전특구와 지역이 자율적으로 공교육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도 적극 대응한다.

시는 △자율비자율 혼합상황 관제를 위한 시스템 기반 조성사업(210억) △글로벌 제조융합 메타버스 개발 및 실증사업(190억) △산단스마트화 임대공장 시범사업(150억) 등 미래 성장산업인 자율주행 산업, 메타버스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이유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200억)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특성화사업(12억)으로 구미역전광장 활성화 일감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농촌 지역 활성화, 교육 인프라 강화와 더불어 역전광장 확장을 통한 소통의 문화공간을 구축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든다.

이은진 기자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행복 의성교육

지표: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이 넘치는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방향: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학교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다함께 누리는 교육 복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권기창 안동시장은 19일 시청 청백실에서 건강도시 조성사업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100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9일 오전 영주시의회에서 열리는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폐회식)에 참석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19일 오전 봉화군민회관에서 열리는 '2023년 자원봉사자단체 평가대회'에 참석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19일 오전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3년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9일 오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2023년 청송군농업인대학 수료식에 참석한다.



영양군 크리스마스 음악회

영양군은 '2023년 크리스마스 로망틱 멜로디'를 18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심신이 지친 군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화해와 화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선착순 300명이 입장할 수 있으며 무료공연으로 진행됐다.

크리스마스 로망틱 멜로디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콘서트는 발라드, Jazz, 크리스마스 캐럴 등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로맨틱한 공연으로 구성했다. 권윤동 기자



청송군, 불법 현수막 단속

청송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불법옥외광고물 집중단속 및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담당자 10명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대상 광고물은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및 불법광고물이 해당된다. 정비구역은 청송IC 진출입로, 주요 도로변 및 면소재지 주변 등 보호자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윤병문 기자

올해 '영양 별빛아카데미' 대단원의 막 내려

차별화된 평생교육 모델
명사초청 강연 등 이어져

영양군의 대표적 교양프로그램인 평생교육의 장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인간은 누구나 가정, 학교, 사회, 전 생애를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교육은 사회 문물이 크게 변화해 감에 따라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 취지는 곧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새로운 사회 및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영양 별빛아카데미'는 영양군민 모두의 질 높은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영양군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걸어가기도 서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 예술, 교양, 인문, 등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군민에게 깊이 있는 강연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군민에게 문화적 소양을 쌓고, 각 분야의 명사에게 배울 수 있는 일종의 소통의 장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별빛아카데미를 야심차게 준비했다.

별빛아카데미는 지난 15일 올해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아쉬움과 동시에 내년을 기약하는 전환점이었다.

'22년 10월부터 진행된 강연은 "변화의 핵심은 교육, 배워야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해 현재 8화째를 맞이했다.

방송인 이상벽씨를 초빙해 첫 영양별빛아카데미를 개최한 이후 교수, 의사, 역사강사, 산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군민들에게 지식과 감동을 전했다.

영양군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이동성이 좋지 못한 지역민들과 다양한 교육을 접하고 싶어 하는 군민들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평생교육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런 실제 군민들이 직접 강연을 들으러 가기도 했던 혹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명사들을 초빙해 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했다.

그 역할을 한 영양별빛아카데미는 매회 큰 호응으로 반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

군민들은 별빛아카데미가 열리기를 매달 기다리며, 다음 강사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 또한 높아간다고 말한다.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돈을 내고 봐야 하는 명사들의 강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

다는 것에 별빛아카데미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왔다.

이처럼 군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행정이 다시금 관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행정의 역할로 바람직하다.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법이다.

군은 단순 강연 제공만으로 군민의 대통합을 유도하기엔 큰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향후 별빛아카데미는 군민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병행해 군민 대통합을 실현하고

자 노력하기로 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중요한 것은 소통, 다시 말해 나 아닌 다른 이와 대화를 통한 이해이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말했으며, "우리 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인구가 적다. 그만큼 서로 간에 유대는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중 하나다. 앞으로 소통의 장을 많이 개설해 다양한 지식과 소양을 쌓아가며, 서로 간에 유대를 길러갈 수 있는 개인의 역량 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로 군민들에게 많은 참여의 장을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주 철길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연다

22~23일 구성공원 일원서
행복·낭만, 감동나눔 행사

영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행복과 낭만, 감동을 나누는 '영주 철길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소외관광 편의서비스 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2023년 소외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가 후원하고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 '야시장 크리스마스 마켓'은 구성공원 일원의 철길을 따라 열리며, 양일간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스텝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 포토존 스텝크리스마스 이겨라 △무대 레크리에이션 △지

역 먹거리 장터 △푸드트럭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된다.

행사장에는 3명의 산타가 미니게임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100% 당첨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증정하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영주사랑 노래·댄스 대회, 노래 듣고 빨리 맞추기 게임, 크리스마스 최고의 커플, 세대공감 퀴즈 이벤트, 영주 가족 오락관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22일에는 아카펠라 인디밴드 '두왓사운즈'가 다양한 장르의 아카펠라 스타일의 커버곡을 선보일 예정이며, 23일에는 2인조 밴드 '디에이드' 축하공연이 진행되며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낭만적인 음악을 선사하는 '철길 버스킹'도 함께 준비돼 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김덕우 대표이사는 "영주에

만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 단순한 행사를 넘어 크리스마스가 상징하는 행복, 낭만, 풍요의 가치를 실현하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한다"며, "유 휴지를 적극 활용한 쇼핑 관광상품 및 다양한 행사를 개발해 체면 원도심을 활기찬 도심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영주시는 소외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이번 야시장을 포함해 '영주역 트레블라운지', '영주행 열차 여자역사', '이서와 영주', '내게와 영주' 5개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천혜의 자연과 보석 같은 관광지 그리고 다채로운 지역 특산물을 포함한 영주만의 관광상품 개발로 쇼핑 관광지로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 中 시안시와 교류 강화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시성 시안시 대표단이 18일과 19일 양일간 안동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체결한 '안동시-시안시 인문·문화·관광 분야 MOU'에 관한 실질적인 교류 사업과 우호 교류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안동을 찾은 시안시 대표단은 시안시 외사관공실 부주임 리사오옌을 비롯한 물문국 부국장, 시안시반태대구관리위원회 부주임, 교육국 및 외사관공실 처장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동시의 문화와 축제 및 국제포럼 등을 소개하고 △ 문화유산 관리 사례 공유와 상호 학술대회 및 포럼 참가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시안 성벽 신춘 등불축제 상호 참가 및 도시홍보 △ 2024년 인문·문화·관광 분야 교류 및 세계인문도시 네트워크 창립에 대한 시안시의 참여와 지지 등 인문·문화·관광분야의 교류사업과 교류방안 및 국제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시안시 대표단은 시립민속박물관과 월영교 야경을 관람하고, 다음 날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을 탐방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최준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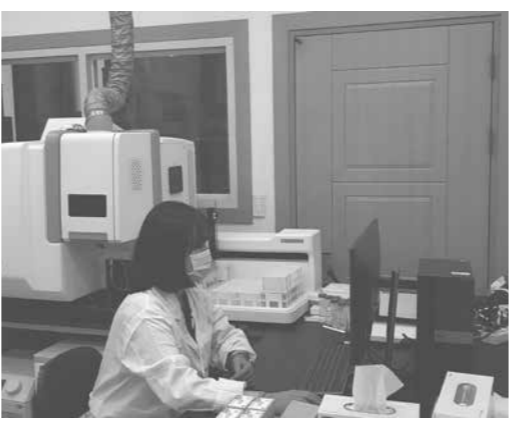
봉화군, 농산물 잔류농약·토양 분석력 우수성 입증

국내외 숙련도 시험 참가
뛰어난 정확성 인증 받아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가 영국 환경식품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공인 비교숙련도 평가프로그램(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프로그램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및 토양 분석 기술력을 인증받았다.

FAPAS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실시하는 수질, 식품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10여 개 분야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며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전 세계 정부기관, 연구소 및 민간기업 등 매년 3000여 개 분석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FAPAS에서 잔류농약(사과, 딸기) 2개 분야에 참여해 23가지 영양성분 중 Diazinon(다이아지논), Tebuconazole(테부코나졸) 성분 외 3성분은 Z-Score±0.1을, 다른 성분



들에서도 우수한 결과(±1)로 평가받았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잔류농약(토양, 배추) 2개 분야에 참여해 20가지 영양성분 중 Bupropresin(부프로페진), Fludioxonil(플루디옥소닐) 성분은 '±0.1'을, 다른 성분에서도 우수한 결과(±1)로 평가받았다.

토양검사에서는 유기물 외 7항목에서 '±1.5'를 기록해 모든 분석항목이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평

가를 받았다.

Z-Score란 평가에 참여한 실험실 간 오차 범위를 산출한 것으로 '±2.0' 이내이면 신뢰할 수 있는 적합한 결과로 판정하며 '0'에 가까울수록 분석결과가 매우 정확함을 의미한다.

2012년 설립된 봉화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및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5000건 이상의 토양검정, 용수, 잔류농약, 가축퇴·액비에 대해 정밀분석을 하고 분석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국내외 분석능력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가해 잔류농약, 수질 및 토양검정 분야는 1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신종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내 및 국외 숙련도 시험 평가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입증 받았으며, 봉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예천군, 과수 육성시책 우수상

예천군은 지난 15일 경북도에서 주최한 '2023년 경상북도 과수산업 육성시책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과수산업 육성시책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의 △과수분야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과수산업 육성노력 △사업추진 실적 및 지자체 관심도 등을 포함한 5개 분야 8개 항목을 평가했다.

예천군은 그동안 과수 분야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왔으며, 특히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감천면 별방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지 복구를 위해 '24~25년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친환경 스테비아 지원 등 신규사업도 발굴했다. 또한, 2023 예천농산물축제에서 '예천사과 월드컵'을 성황리에 개최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병욱 기자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간권 300만원 상당 후원회비지원
 (출간권 100만원 후원회비 지원 + 200만원)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배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전드리클럽

최기파 전원
 기념품 증정
 평판상 무제한

출발시간: 08:00
 예선시간: 08:30 ~ 10:00 (1회차)
 10:30 ~ 12:00 (2회차)
 12:30 ~ 14:00 (3회차)

주최: 대구광역시일보배
 후원: 대구광역시체육회, 대구광역시골프협회
 주관: 대구광역시골프협회



대상내역

- 1등: 100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2등: 50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3등: 30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대상별

- 남자 1등: 100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등: 50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등: 30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등: 20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등: 10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등: 5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등: 3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등: 2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등: 1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0등: 50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1등: 30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2등: 20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3등: 10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4등: 5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5등: 3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6등: 2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7등: 1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8등: 5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9등: 3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0등: 2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1등: 1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2등: 5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3등: 3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4등: 2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5등: 1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6등: 5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7등: 3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8등: 2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29등: 1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0등: 5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1등: 3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2등: 2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3등: 1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4등: 5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5등: 3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6등: 2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7등: 1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8등: 5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39등: 3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0등: 2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1등: 1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2등: 5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3등: 3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4등: 2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5등: 1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6등: 5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7등: 3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8등: 2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49등: 1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0등: 5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1등: 3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2등: 2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3등: 1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4등: 5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5등: 3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6등: 2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7등: 1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8등: 5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59등: 3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0등: 2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1등: 1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2등: 5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3등: 3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4등: 2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5등: 1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6등: 5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7등: 3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8등: 2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69등: 1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0등: 5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1등: 3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2등: 2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3등: 1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4등: 5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5등: 3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6등: 2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7등: 1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8등: 5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79등: 3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0등: 2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1등: 1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2등: 5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3등: 3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4등: 2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5등: 1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6등: 5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7등: 3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8등: 2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89등: 1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0등: 5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1등: 3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2등: 2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3등: 1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4등: 5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5등: 3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6등: 2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7등: 1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8등: 5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99등: 3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 남자 100등: 200원 상당 기념품 지원

상기규도 후원회비로 신의 하방 고사

2023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후원회비 지원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회고회

대구 시상식 및 추경 연례인 공간

후행사 장소 : 경주대게이 호텔

- 1.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0.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1.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2.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3.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4.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5.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6.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7.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8.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9.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0.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1.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2.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3.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4.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5.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6.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7.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8.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29.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0.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1.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2.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3.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4.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5.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6.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7.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8.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39.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0.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1.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2.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3.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4.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5.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6.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7.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8.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49.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0.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1.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2.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3.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4.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5.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6.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7.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8.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59.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0.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1.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2.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3.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4.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5.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6.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7.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8.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69.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0.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1.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2.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3.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4.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5.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6.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7.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8.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79.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0.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1.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2.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3.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4.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5.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6.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7.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8.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89.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0.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1.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2.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3.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4.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5.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6.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7.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8.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99.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 100. 참가비: 10만원 (1인 1회차)

문의: 054-271-1111

대구광역시보 2024년 2월 26일 10월 10일 10월 10일